수질검사 결과·위해성 등 공개 않고 "안전 이상 없다"

광주시 수돗물 발암가능물질 검출 '쉬쉬'

나프탈렌, 소량에 공기중 기화
"끓여 마셔라" 시민에 공지만

지난 7~8일 광주 남구 주월·월산동, 서구 화정·염주동 일원에 이물질 수돗물 사고 당시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나프탈렌이 섞인 물이 공급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나프탈렌이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인체 발암가능물질인데도, 광주시가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물을 끓여 마시라"는 정도의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광주시는 당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이 공급됐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만 안내했다.

황봉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사고 이후 주말과 휴일이 지난 11일 광주시 기자실로 찾아와 자청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사고를 일으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만 거듭 사과했을 뿐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백운동 일원 하수도관 매설 공사 진동이 인근 노후 수도관에 전달돼 헐거워졌던 코팅막 일부가 벗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고,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탁도(흐린 정도)가 조금 기준치를 웃돌다 이내 정상화됐다"는 정도만 설명했다.

당시 일부 기자들이 "이물질 성분 분석을 했느냐, 수돗물에 포함된 이물질이 정확히 무엇이고 인체 위해성은 어느 정도냐"고 물었으나 "톨루엔 등 1급 발암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만 반복했다. 다만, 황 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나프탈렌은 소량 검출됐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 수돗물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나프탈렌이 미량이긴 했으나 처음으로 검출되면서 광주시 상수도본부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그사이 지난 14~15일 북구 문흥동에서 탁한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해당 수돗물에서는 나프탈렌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앞선 남구·서구 이물질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7~8일 일어난 남구 주월·월산동, 서구 화정·염주동 수돗물 사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더 이상 나프탈렌이 검출되지 않자 19일 '수돗물 음용 주의' 주민공지를 해제하는 데 그쳤다.

수돗물 음용 주의 주민공지 해제 소식을 담은 광주시 보도자료에서도 사고 수돗물 검사 과정에서 아연·구리 등 중금속이 미량 검출됐다고 뒤늦게 알렸다가, 이 내용을 삭제한 수정 보도자료를 내는 등 혼선을 거듭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수돗물 사고의 근본 원인인 노후수도관(약 245㎞) 교체 등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현실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진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예년의 4배 이상 관련 예산 확보해 노후관 교체 사업에 집중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4~2016년까지 3년간 노후수도관 교체에 106억원을 투입했으나 2017~2019년까지 3년동안은 280억원 늘어난 390억원을 썼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늘려 조속히 정비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나프탈렌은? 세계보건기구 2002년 발암가능물질 분류

나프탈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02년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정했다.

방향제·방충제 등으로 한때 널리 사용돼 발암가능물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나프탈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나프탈렌에 급성으로 중독되면 48시간 이내에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또 만성으로 중독되면 말초신경염과 만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체상태의 나프탈렌은 눈을 자극해 수정체를 혼탁하게 하며 시신경염이 나타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조국 사태·한반도 평화서 다문화까지
다양한 주제 117분간 20개 질문 답변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녁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117분 동안 국민들의 직접 질문에 답변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각본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조국 사태', 한반도 평화, 소상공인·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로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들 김민식(9) 군을 잃은 엄마인 박초희 씨를 직접 지목했다.

민식이의 사진을 든 남편 옆에서 흐느끼며 마이크를 잡은 박씨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질문을 듣던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보시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식이 엄마'를 시작으로 패널 17명이 현장에서 던진 질문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에 올라온 질문 3개 등 모두 20개 질문에 대답했다. 다문화 교육 교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 민족사관고 1학년 남학생, 소상공인, 중증장애인, '워킹맘', 북한이탈주민, 일용직 노동자, 여자 중학생과 남자 대학원생 등 다양한 패널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핵심이 없는 다소 '엉뚱한' 질문들도 나오면서 한계도 보였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방송 시간을 15분가량 넘겨 오후 9시 57분까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 종료 후에도 문 대통령은 패널들의 밀려드는 '셀카 요청'에 연신 사진을 찍었으며 각종 호소문과 의견서도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패널 중 독도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나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포옹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달된 질문에 대해 적절한 형식으로 답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290) 정화수

자식 성공 위해…등굽은 어머니의 새벽기도

지난 달 중순에 세상을 떠난 김행신 전남대 명예교수(1942~2019)의 부음을 얼마 전에 들었다. 지난 봄 광주시립미술관 '남도미술-뿌리전' 참여 작가로 개막식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선했는데 뒤늦은 명복을 빌어본다.

만화 캐릭터 머털도사처럼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듯 촌스럽지만 한편으론 예술가스러운 단발머리를 부지런히 쓸어 넘기고, 오십년 이상 돌을 다듬느라 거칠고 투박해진 손을 내밀며 우악스럽게 악수하던 모습, 제자들 결혼식 주례할 때 말고는 양복을 입은 적이 없을 정도로 늘 함께 했던 작업복은 제자들이 추념하는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광주·전남 조각 1세대 작가로서 76년부터 40년 이상 전남대 예술대에서 후학들을 이끌어온 작가는 특히 제자사랑이 남다르기도 했는데 장례식장에는 전국에서 달려온 제자들의 통곡소리가 가득했다고 한다. 남도 구상조각의 기수로서 활동해왔던 작가는 대신증권 사옥 황소상을 비롯 주요 빌딩에 수많은 모뉴먼트를 남겨 길거리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조각가이다.

김행신작가의 '정화수 떠놓고'(1989년 작)는 새벽이면 정화수 앞에서 아들의 성공을 빌던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고흥 출신으로 불우했던 어린 시절 무작정 상경하여 고학하면서 서라벌예고, 예대를 다녔던 작가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가족 뒷바라지에 고생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펑퍼짐한 몸매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는 작가에게 예술적 모티프가 되었고 그 후로도 모성, 평화, 불성의 이미지로 승화되었다.

"둔중하면서도 볼륨이 큰 작품" "어둡고 긴 황야에서 들려오는 야성의 부름소리-어떤 주술과도 같은 이미지가 가득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원만한 곡선과 풍만함을 유지하면서 추상적인 두상에 동그란 입 모양을 강조함으로써 기도의 언어와 간절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듯하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김행신 작 '정화수 떠놓고'